



김효신의 스페인 여행기 스페인, 더 멀리 저 너머로

7. 피스몰라: 맛있는 요리와 따뜻한 환영

마드리드에 새로 등장한 젊은 요리사가 색다르고 참신한 스페인 음식을 선보인다는 피스몰라는 해산물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레스토랑이었다. 해산물을 좋아하는 R과 나는 무엇을 먹을까 즐거운 고민 끝에 스페인식 생선회인 도미 크루도와 게살로 만든 파이를 먹기로 했다. 애피타이저로는 흔히 볼 수 없었던 로스트 순무를 주문했다. 와인도 주문했는데 와인 값이 너무 싸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와인 한 잔에 대부분 4유로, 비싸다 해도 5유로이니 미국 와인 가격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고루 맛을 보려고 블랑코와 톨토를 한 잔씩 주문했다. 향기로운 스페인 와인이 부드러운 비단처럼, 달콤한 물처럼 목으로 술술 넘어가는데 가격까지 착해서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다.

비좁지만 정겨운 커뮤널 테이블에서 스페인 사람들 사이에 끼어 앉아 부드러운 와인을 마시는 동안 애피타이저 로스트 순무가 나왔다. 장미꽃 모양으로 돌려 깎아 예쁘게 구워냈다. 순무가 그런 모양과 맛을 낼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기에 우리는 신기해하면서 맛있게 먹었다. 우리가 애피타이저를 먹는 동안 옆에 앉았던 사람들이 나가고 스페인 아저씨 두 명이 새로 와 앉았다. 일부러 들은 것은 아니지만 와인을 한 병 시키고 우리처럼 게살 파이를 주문하는 것 같다. 고등학교 때 스페인어를 일 년 배운 것이 전부인데 로스엔젤레스 출신이라 그런지 스페인어가 귀에 쫄쫄 들어오는 것이 신기했다.

드디어 우리 게살 파이가 나왔다. 옆에 스페인 아저씨들에게도 동시에 가져다 주었다. 배가 고팠던 우리는 얼른 포크를 들고 한 입 베어 먹었다. 그런데 이게 뭐지? 완전 한국 식 김치찌개 맛, 그리고 동시에 생선 조림 맛이 물씬 났다. 게다가 옆에 스페인 아저씨들이 자기네 게살 파이를 먹으면서 '이거 딱 한국 김치 맛이네' 해서 더 놀랐다. 우리는 김치가 들어 있나 파이를 포크로 헤쳐 보았지만 김치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그저 김치 맛, 생선 조림 맛이 날 뿐이었다. 그런데 옆 스페인 사람들은 김치 맛을 어떻게 아는지? 어쨌건 한국 사람 입맛에 딱 맞는 게살 파이는 엄청나게 맛

있었다. 결눈질로 보니 옆에 아저씨들도 그야말로 계는 감추듯이 맛있게 먹고 있었다.

도미 크루도도 나왔다. 얇게 회를 뜬 투명한 도미를 접시에 깔고 그 위에 포도, 아몬드, 베이비 야채를 얹은 후 무언가 아주 은근한 맛의 오일을 뿌렸다. 식초 종류가 들어간 것이 분명한데 신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도미는 숙성시킨 듯 싱싱하면서도 고소하고 쫄깃했다. 보기 좋기도 하거니와 단연코 우리가 주문한 세 요리 중에 가장 맛있었다.

우리가 맛있게 먹는 동안 주위의 스페인 사람들은 한창 떠들고 있었다. 스페인 사람들은 실 새 없이 활발하게 말하고 대화 중에 표정이 풍부했다. 검은 눈을 크게 뜨고 심각하게 얘기해서 매우 진지하게 보이는데 그것이 참 보기 좋았다(사실 자세히 들어보면 별 심각한 얘기는 아니지만). 스페인 사람들 속에 앉아 식사하고 있는 R은 초록색 스웨터를 입고 오렌지빛 갈색으로 물들인 곱슬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완전 동양적인 모습인데 분위기는 완전 유럽 아가씨 같아 딸바보 엄마 눈에는 매력 덩어리였다.

레스토랑은 12시 30분에 문을 닫는데 밴드가 들어 오더니 우리 테이블 옆에 앉아 12시 15분에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시작했다. 식사를 마친 우리는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옆자리 스페인 아저씨들이 가지 말고 노래 듣고 가라며 와인을 권했다. 우리 잔이 빈 것을 보고 부어주려 한 것이다. R의 말이 스페인에서는 혹은 유럽에서는 일행이 아니더라도 옆에서 함께 마시다가 누구든지 잔이 비면 무조건 채워준다고 한다. 참 훈훈한 인정이고 후한 와인 인심이다. 우리는 와인은 마시지 않았지만 노래는 들었다. 부드럽고 감미로운 멜로디를 따라 '...gente de Madrid(마드리드의 사람들...)' 이란 후렴을 반복하는데 레스토랑 안의 사람들이 모두 어깨동무를 하고 따라 불렀다. R과 나도 후렴구를 따라 부르면서 미소 지었다. 옆자리 스페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웃어 준다. 마드리드의 첫 밤을 환영해 주는 것처럼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였다. 피스몰라에서 스페인 첫 저녁 식사하길 참 잘했다.

메디케어 처방약보험

치과: 본인이 원하시는 치과의사 선택과 전반적인 치과 다 커버되는 우대플랜 (\$1500-\$2000/yr) - (지역별로 다름)

- ★ 올해 65세가 되시는 분 (메디케어 수혜자)
- ★ 시니어 우대플랜 - Part C (A+B+D)
- ★ Extra Help (처방약 보조)가 필요하신 분
- ★ Medicare와 Medicaid (메디칼)을 같이 갖고 계신 분
- ★ 현재 플랜을 바꾸고 싶으신 분
- ★ 타주 혹은 다른 카운티에서 이사 오신 분
- ★ Supplement Plan (PPO)
- ★ 의사나 병원 선택의 자유



*29년의 오랜 경험으로 어르신들께 필요하신 혜택을 최선으로 찾아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 에이전트와 상담하세요

Sally Kim Licensed Insurance Agent
(714)714-6393 License No. 0B07129
Skim8588@yahoo.com

부에나 팍 양로병원

Buena Park Nursing Center ★★★★★

Skilled Nursing

IV 투여, 당뇨, 통증관리, 투석케어
외상치료, 호스피스케어 등

Subacute Unit

Respiratory, Tracheostomy Care
Ventilator 등

서비스

한국음식 또는 미국음식
한국인 스태프 / 한국인 소셜워커
한국책, 신문 / 24시간 한국방송
다양한 한인교회 봉사활동

재활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메디케어, 개인, 메디칼, HMO, PPO 취급합니다

www.buenaparknc.com

한국어: 562-240-3516 한국분이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영어 : 714-828-8222 Fax: 714-828-1467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부동산 에이전트를 찾고 계십니까?

다니엘 전에게 전화 주세요

귀하의 주택 구입과 판매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무료 시세 평가를 해드리오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Mobile: 949.533.3537
Daniel@CanadayGroup.com
CanadayGroup.com
DRE #02132401



LEE ANN CANADAY | CANADAY GROUP
DRE# 00560041



RE/MAX FINE HOMES | CANADAY GROUP
ORANGE COUNTY LUXURY HOME SPECIALISTS